

CEO Information

2006.7.5 (제560호)

SERI 창립 20주년 특집(I)
한국산업 20년의 발자취

목차

요약

I. 산업구조의 변화

II. 산업 성장의 요인

III. 향후 과제

작성 : 고정민 수석연구원(3780-8093)
jio23@seri.org
임영모, 박성배 수석 외 3명
감수 : 윤종연 연구위원(3780-8160)
joyoon@seri.org

《 요약 》

지난 20년은 한국의 산업이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에 노출된 격동의 시기였다. 1986년 공업발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도의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이 민간자율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었으며, 이후 개방화가 진전되면서 국내산업에 대한 정부의 보호막이 대부분 사라졌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속에서도 한국은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 IT산업으로 산업구조가 고도화되었으며, 선진국 시장에서 중국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시장이 다변화되면서 수출 주도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왔다. 한국은 현재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 IT업계를 선도하고,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에서도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국 산업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 변화가 주는 기회와 위협에 적절하게 대응하였기 때문이다. 즉,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의 전환', '중국·인도 등 신흥시장 부상'이라는 기회를 선취하고, '개도국의 강력한 추격'과 '선진국의 견제 확대'라는 위협을 극복한 것이 성장의 원동력이 된 것이다.

각각을 보면, 첫째, 디지털 전환기에 DRAM, LCD, CDMA 등 IT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 및 위험감수로 선진국의 경쟁기업을 하나 둘 추월하였다. 또한 정부는 적극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주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확보하였다. 둘째, 냉전체제가 종식되면서 새로 개방되었으나 선발 다국적기업의 시장장악력이 약한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하여 점유율을 크게 확대하였고, 고급제품을 투입하여 브랜드 이미지를 높였다. 셋째, 중국 등 후발공업국의 부상으로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이 격화되자 국내 산업구조를 기술·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과감하게 전환하였다. 또한 해외현지생산의 확대로 원가경쟁력을 확보하는 동시에, 품질·디자인 등 비가격경쟁력을 강화하였다. 넷째, 선진국의 견제에 대해서는 도전적인 R&D 투자와 첨단기술개발에 승부를 걸었고, 신제품과 신공법 개발에 성공하여 선진기업을 추격·추월하였다.

지난 20년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한국 산업의 미래를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FTA 등 개방경제체제 확대, 급격한 원화절상, 원천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 등 환경 요인이 악화되고 있으며, 선진기술의 모방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캐치업형 성장모델 역시 한계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새로운 추진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① 신성장분야의 발굴, ② 제조업과 IT 등 강점을 지렛대로 활용, ③ 부품소재·원천기술 등 기초체력의 강화, ④ 규제개혁 및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 추진 등의 과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I. 산업구조의 변화

세계시장으로 뻗어나간 한국 산업

□ 1980년대 중반 이후 한국의 산업은 본격적인 글로벌 경쟁에 노출

- 1960년대 경제발전 정책의 근간이었던 정부주도의 선별적 산업육성정책이 1986년 '공업발전법¹⁾ 시행으로 기능적 지원정책으로 전환
- 1980년대 중반부터 미국 등 선진국의 압력으로 정부의 보호가 점차 축소되고 수입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글로벌 경쟁체제에 진입
- 1990년대 초반 제조업에 대한 보조금이 선진국 수준인 국민총생산의 1.9% 수준으로 삭감²⁾

□ 선진국과 본격적으로 경쟁한지 20년 만에 상당수 산업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 현재 반도체, 휴대폰, TFT-LCD 등 IT업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자동차, 철강, 조선 등 중공업에서도 강자의 지위를 차지

한국 주요 산업의 위상변화

산업	1986년	1996년	2005년
자동차(생산대수, 천대)	602(1.3)	2,813(5.4)	3,699(5.5)
철강(조강생산량, 천Mt)	14,555(2.0)	38,903(5.2)	47,770(4.2)
조선(건조량, 천GT)	3,056(24.1)	6,737(28.8)	14,727(37.2) ¹⁾
DRAM(매출액, 백만달러)	67(3.5)	8,710(33.6)	12,131(48.1)
LCD(생산능력, 천m ²)	-	16(17.3)	7,656(42.9)
휴대폰(생산대수, 만대)	-	69(1.0) ²⁾	15,800(19.5)

주: 괄호안은 세계시장 점유율(%), 1)은 2004년 데이터, 2)는 추정치

¹⁾ 1970년대 중화학공업 육성정책의 근간을 이루던 7개 개별산업(기계, 전자, 섬유, 조선, 석유 화학, 철강, 비철금속) 지원법이 공업발전법으로 일원화되면서, 진입제한 등을 포함한 140여 개의 규제조항이 14개로 축소됐으며, 연구개발, 중소기업 지원 등 기능별 지원정책이 강화됨

²⁾ 이제민, "한국의 경제발전모형: 기적, 위기와 대전환", 경제발전연구 4권 2호, 1998

고부가가치 첨단 산업구조로 변화

□ 20년 동안 제조업³⁾의 주도산업이 섬유→자동차→IT로 변화

- 1970년대부터 1980년대 초까지는 섬유, 식료품 등 경공업이 경제성장을 견인
- 1980년대 후반부터 자동차를 비롯한 중화학공업이 주도산업으로 부상
 - 특히 자동차 산업은 내수시장의 급성장으로 1990년대 중반까지 GDP 성장에 가장 많이 기여함
- 1990년대 후반부터 반도체 등 IT산업이 성장을 주도하기 시작했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그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제조업)

(%)

	1975~1985		1986~1990		1991~1995		1996~2000		2001~2005	
1	섬유	3.4	자동차	3.0	자동차	3.1	반도체 및 전자부품	14.4	반도체 및 전자부품	19.4
2	식료품	3.2	철강	2.2	반도체 및 전자부품	2.9	컴퓨터 및 사무기기	3.8	영상,음향 및 통신기기	12.0
3	금속제품	2.3	금속제품	2.0	철강	2.6	자동차	3.6	자동차	4.4
4	철강	1.9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1.4	일반산업용 기계	2.2	산업용 화합물	3.0	석유 및 석탄제품	2.4
5	기타수송 기계	1.2	섬유	1.3	산업용 화합물	2.1	영상, 음향 및 통신기기	2.9	기타수송 기계	2.0

주 1: 성장기여도 = 특정부문의 실질 부가가치 상승분 ÷ GDP 성장분 × 100

2: 국민계정 78개 산업부문 기준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기반으로 분석

³⁾ 한국의 제조업 비중은 1988년 최고치인 32%를 기록한 이후 20%대 후반으로 떨어졌으나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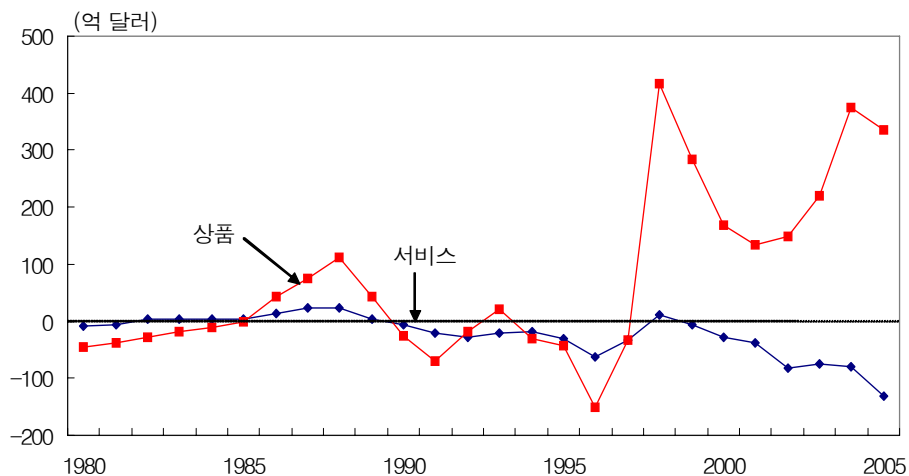
□ 제조업 이외에서는 1980년대는 건설업, 1990년대 후반부터는 통신서비스 산업이 경제성장을 견인

- 1980년대 후반 주택 200만호 건설이 시작되면서 아파트 문화가 확산되었고, 이후 1990년대 초에는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 확충이 활발
- 건설업의 GDP 성장기여도: 14.6%('86~'90)→11.4%('91~'95)
- 1996년 CDMA방식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시작되고 초고속 인터넷이 확산되면서 통신서비스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
- 통신서비스의 GDP 성장기여도: 8.0%('96~'00)→9.3%('01~'05)

□ 수출 주력상품도 첨단기술 제품 위주로 변화

- 3저 호황(1986~1989년) 이후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으나 외환위기 이후 흑자기조가 정착
- 그러나 서비스 부문의 수지는 2005년 13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폭이 더욱 확대
- 수출주도 상품도 섬유, 의류 등에서 반도체, 자동차 등 기술 및 자본 집약적인 상품으로 변화

상품 및 서비스 무역수지 변화



자료: 한국은행, ECOS DB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에 대비해야 할 시점

□ 지난 20년간의 成長史를 돌이켜 보고 미래에 대비해야 함

- 그 동안 한국 산업은 환경변화에서 비롯된 다양한 기회와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한 단계씩 도약
- 현재의 주력산업은 1970년대 중화학공업화를 통해 집중 육성됐던 분야로 장기적인 안목에서 새로운 성장동력발굴이 절실

□ 한국 산업의 성공을 이끈 캐치업(catch-up) 전략에서 진일보하여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스스로 창조해야 할 시점

- 중국·인도의 부상, FTA의 확대 등 급격한 환경변화를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전략 필요
- '빠른 추종자'에서 시장을 창조·선도하는 '혁신가'로의 변신 요구

II. 산업 성장의 요인

□ 지난 20년간 한국산업은 각각 2개씩의 큰 機會와 威脅을 경험

- 기회: 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시대로 전환, ② 러시아, 중국, 동구권, 인도 등 신흥 시장(Emerging Market)의 부상
- 위협: ① 후발개도국의 강력한 추격 ② 선진국의 견제 확대

□ 한국산업은 이러한 기회를 선취하고 위협을 극복함으로써 환경변화를 유리하게 활용

- 디지털 시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기술도약의 기회를 포착하고, 신흥 시장에 과감하게 접근하여 해외시장을 확보

- 후발개도국의 추격에 대응하여 고부가가치형 산업구조로 전환하고, 선진국의 견제를 독자적인 기술역량 강화의 계기로 활용

환경변화와 대응

기회·위기 요인		환경 변화	대응
기회	디지털시대의 도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날로그→디지털 전환 · IT 신제품·신서비스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주도의 IT 인프라 구축 · 기술기회 포착과 과감한 투자
	신흥 시장 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舊사회주의권 시장개방 · 신흥공업국 경제 급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다변화로 범용제품의 판로 확보 · 플랜트수출·직접투자로 국제화 경험 축적
위협	후발개도국의 추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격경쟁력 약화 · 수출시장에서 경쟁격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고도화 · 비가격경쟁력 강화
	선진국의 견제 심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압력의 가중 · 국내시장 개방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전적인 R&D 투자와 첨단기술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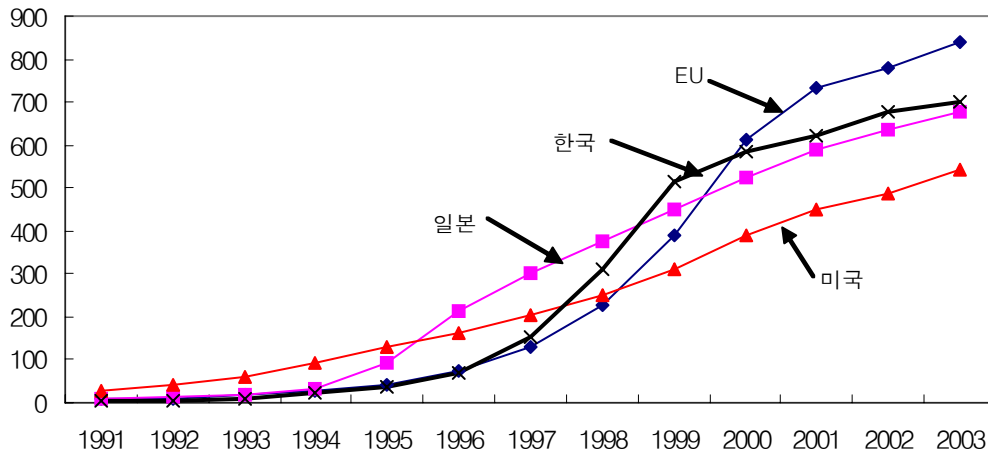
1. 디지털 전환기를 IT산업 도약의 기회로 활용

디지털 경제의 부상

□ 1990년대 후반 발생한 디지털 혁명이 세계 IT산업과 각국의 경제성장을 견인

-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혁명이 국가와 기업의 IT 수요를 급격히 확대시키면서 미국을 비롯한 각국 경제의 성장을 주도
 - 세계경제 연평균 성장률: 3.2%('90~'98) → 4.2%('98~'00)
- 인터넷을 촉매로 하여 IT 투자가 확대되고 정보기기 산업이 성장
 - 1995년 미국의 PC 보급률은 33% 수준이었으나, 1999년에는 52%로 확대되어 20%p 증가
- 이동통신 방식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면서 단말기의 보급이 급속히 확대

이동통신 단말기 보급률(1000명 당 보유대수)



자료: WDI DB

□ 세계적인 IT 붐은 우리 경제가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첨단기술 중심의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1999~2000년중 GDP의 15%를 차지하는 IT산업이 30% 대의 성장세를 보이면서 한국경제 회복에 큰 기여
- 반도체는 1998~2000년중 40% 내외의 성장을 보이면서 IT경기 주도
- 1999~2000년 한국의 총수출은 전년대비 20%의 고성장을 실현하였는데 이 역시 IT산업의 높은 수출증가율(31%) 덕택
- 2003~05년에는 3저 호황기인 1986~88년 이후 처음으로 수출이 3년 연속 두자리 수 증가율을 보임

디지털 전환기의 기회 포착과 과감한 투자

□ 한국기업은 디지털기술에 대한 과감한 투자와 위험감수(risk-taking)로 선진국의 경쟁 기업을 추월

- 과감한 의사결정으로 미지의 기술경로를 선택하고, 집중투자를 통해 시장선점과 표준 장악에 성공
- 既 출시된 NOR형이 아닌 개발단계의 NAND형 플래시메모리를 선택(1993년), 시장이 불확실했던 12.1" LCD패널 생산 결정(1995년) 등

- 이러한 과정에서 LCD, CDMA 단말기(삼성전자), 광디스크드라이브(LG전자) 등에서 한국 기업이 세계 1, 2위 업체로 성장
- 한편 투자 공백과 원천기술 미확보로 디지털 전환기에 오히려 시장을 잃어버린 경험도 있음
- 어쿠스틱 피아노의 강자였던 삼익악기와 영창악기의 경우 디지털피아노의 핵심기술인 음원칩 개발이 지연되면서 시장기반을 상실

디지털 전환기의 국내업계의 위상 변화

	품목명(아날로그 → 디지털 시장지위 변화)
시장지위 유지 품목	VCR/DVD(강→강)
시장지위 상승 품목	휴대폰(약→강), 컬러TV(중→강), 게임(약→중) ¹⁾
시장지위 하락 품목	피아노(중→약), 카메라(중→약→중) ²⁾

주 1: 비디오게임기는 여전히 취약하나 IT인프라를 기반으로 온라인게임은 강세

2: 외환 위기시 투자 공백으로 2003년까지 일시적으로 일본과의 격차가 확대

자료: 삼성경제연구소, 『디지털 변혁기와 국내기업의 약진』, 2003 (수정 인용)

□ 정부의 지속적인 IT 인프라 구축이 IT산업 성장의 기반이 됨

-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보화 사업을 주도하여 세계 최고수준의 IT 인프라를 구축
 - 2005년 PC 보급 2천 6백만대, 초고속인터넷 가입자수 1천만명, 인터넷뱅킹 2천 4백만명, 공인인증서 1천만개 보급 등
- 한국은 독보적인 IT 인프라를 활용하여 사회변화와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디지털 강국의 위상을 확보
- 우수한 정보망과 공동체적 문화가 결합되면서 등장한 역동적 소비자 집단을 기반으로 차별화된 IT 상품을 창출
 - 네이버는 ‘지식 in 검색’ 등 질문과 답변의 형태로 지식을 서비스하는 상품 개발 (2005년 한국내 검색 시장점유율 1위, 65%)
 - 까다로운 한국의 IT 제품 조기수용자(early adopter)는 신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빠른 확산에 기여

세계가 주목한 한국의 IT인프라

- ▷ "2,500만 인터넷 이용자와 3,000만 이동전화 사용자들은 한국을 새로운 콘텐츠 서비스와 무선기술들을 실험할 수 있는 독보적인 시장으로 만들고 있다" (*Businessweek*, 2002.5.31)
- ▷ "한국은 인터넷이 사회저변의 핵심으로 자리매김 했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인터넷사업의 수익성이 증가하는 등 훌륭한 벤치마킹 대상" (*Financial Times*, 2003.1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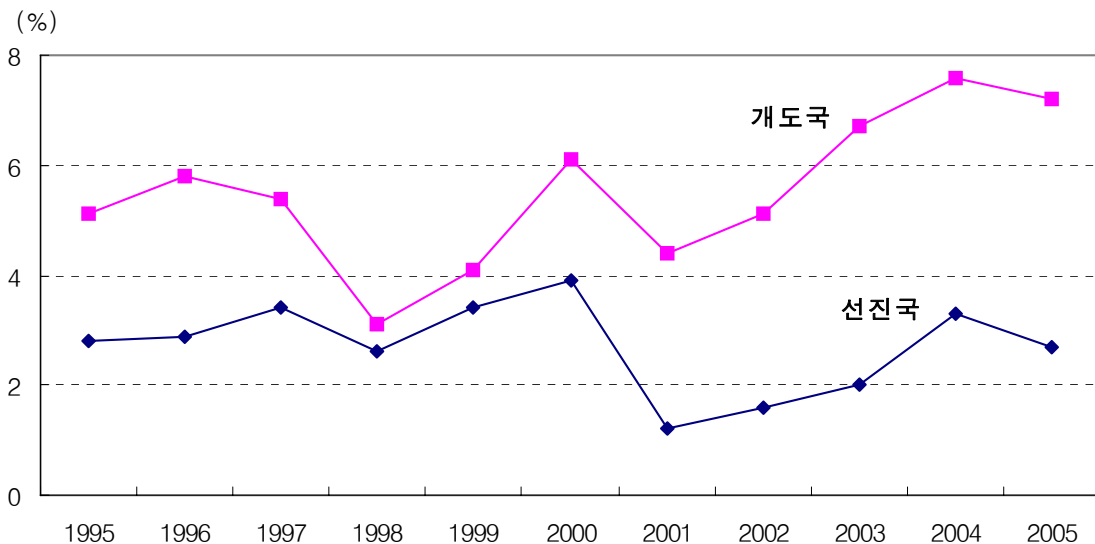
2. 신흥시장 부상으로 수출다변화 실현

냉전시대의 종식과 신시장의 개화

□ BRICs를 포함한 개도국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며 신흥시장으로 부상

- 2000년 이후 개도국의 GDP 성장률은 선진국의 2배 이상에 달하며 점차 격차가 확대되는 추세

선진국과 개도국의 GDP 성장률 격차



주 1: 선진국은 미국, 일본, EU, 한국, 대만, 싱가포르, 홍콩 포함 29개국

주 2: 개도국은 BRICs, 동유럽, 아프리카 국가 포함 151개국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B

□ 냉전체제 붕괴로 한국과의 교역대상 국가가 늘어나면서 한국기업의 진출기회가 확대

- 미국, EU 등 선진국 중심의 수출구조에서 탈피하여 중국, 러시아, 동구권 등 신흥시장으로 수출지역이 다변화
 - 非OECD 국가 수출 비중: 1985년 29.7% → 2005년 57%
- 특히, 중국은 개방 정책 이후 평균 9%대의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우회수출기지 역할도 수행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對中 수출이 급증하며 2003년 미국을 제치고 중국이 한국의 최대수출 시장으로 부상
 - 2005년 對中 수출액은 619억 달러로 총 수출액의 21.8%를 차지

한국의 수출시장 비중 변화

(%)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OECD	65.1	70.3	71.4	51.4	53.6	43.0
미국	26.3	35.5	29.8	19.3	21.8	14.5
일본	17.4	15.0	19.4	13.6	11.9	8.4
EU	15.5	10.8	13.7	13.0	13.6	15.4
기타	5.9	9.0	8.5	5.5	6.3	4.7
비OECD	34.9	29.7	28.6	48.6	46.4	57.0
중국	-	0.1	0.9	7.3	10.7	21.8
인도	-	1.6	0.7	0.9	0.8	1.6
러시아	-	-	-	1.1	0.5	1.4
기타	34.9	28.0	27.0	39.3	34.4	32.2

자료: 한국무역협회 DB

미개척 신시장 공략에 역량을 집중

□ 선진국에 비해 시장진입은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경쟁 강도가 낮은 신흥시장을 집중 공략

- 북미, 유럽 등 선진국 시장에서 확실한 우위를 갖지 못한 한국기업은 신흥시장 개척에 역량을 집중함

- 신흥시장에도 고급제품(high-end products)를 투입하여 점유율 확대
- 인도시장 점유율(2005년): 1위- 전자레인지, 에어컨 등, 2위- TV, 휴대폰, 자동차 등

한국기업의 인도 진출 성공요인

1. 전사적 관점에서 생산거점을 육성할 목적으로 집중투자
2. 고가전략으로 고급품으로 인식시킨 후 저가모델을 도입하는 전략
3. 시장진입 후 끊임없는 현지화 노력과 신속한 원가절감 실현
4. 제품 사양을 국내용 혹은 선진국 수출용 제품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
 - "The Korean Blitz", *Business Standard*, 2002

자료: KOTRA, "해외투자뉴스", 2002.5.2에서 재인용

□ 생활 속으로 파고든 적극적인 마케팅 전략으로 확고한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

- 각국의 대표적인 문화행사나 스포츠 구단을 지원함으로써 현지인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
- LG전자의 상파울로 FC(브라질) 후원, 삼성전자의 볼쇼이 발레단(러시아) 후원 등
- 장기적인 안목으로 일관되게 사업을 수행하여 현지인과 공고한 신뢰 관계를 구축
- 한국 기업은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이나 중국의 사스 발생 시에도 사업 철수를 하지 않아 긍정적인 이미지를 구축

러시아의 위기와 한국 기업의 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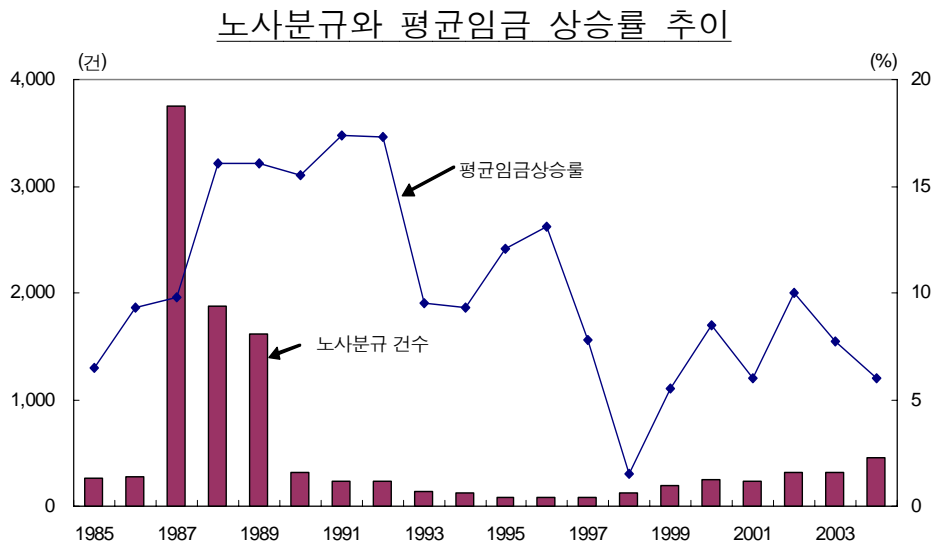
- ▷ 1998년 러시아의 모라토리엄 선언 직후 러시아에서 서둘러 철수했던 외국 기업들과 달리 LG전자와 삼성전자는 사업철수나 축소없이 진행
 - 러시아인들은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데 주저하지 않았던 한국의 두 가전업체를 동료이자 친구로 인식
- ▷ 2004년 러시아 국민브랜드(20개 품목) 선정에서 LG(CD Player, 에어컨, 진공청소기)와 삼성(DVD/Video, 홈시네마)이 5개 부문 1위를 석권
 - 『신화창조의 비밀-코리아 브랜드 연합군 편』, KBS, 2004.11.5

3. 후발국의 도전으로 체질개선 가속

임금 급등과 후발개도국의 도전

□ 한국의 주력산업은 임금이 급등하면서 가격경쟁력을 점차 상실

- 1987년 이후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매년 10% 이상의 임금인상이 관행화되면서 원가부담이 급증
- 전산업 월평균 임금(총액기준)은 1987년 38만 7천원에서 1997년 146만 3천원으로 상승(10년간 3.8배)



자료: 통계청, 노동부

□ 중국 등 후발공업국이 부상하면서 수출시장에서 가격경쟁이 격화

- 수출주력 품목이었던 섬유·신발산업의 경우 1990년대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세계시장 점유율이 중국과 역전

한국과 중국의 섬유류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변화

(%)

	1985	1990	1995	2000	2003
한국	7.01	5.68	5.37	4.79	3.45
중국	6.00	7.18	11.41	13.69	18.07

자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섬유산업통계월보』, 2006.6

- 중국산업의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한·중간의 경쟁은 가전, 정보통신 등 한국의 주력산업 전반으로 확대
- 한국과 중국의 100대 수출상품 중 중복품목 수⁴⁾: 20개('95) → 22개('00) → 29개('05)

산업구조 고도화와 비가격경쟁력 강화로 극복

□ 과감한 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술·자본 집약적인 산업으로 전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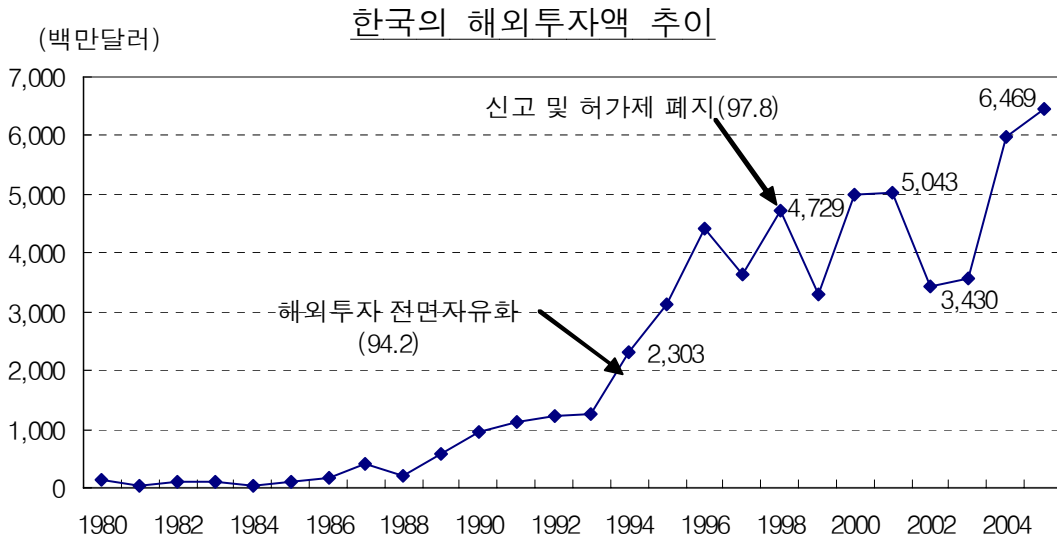
- 1986년부터 섬유, 염색가공 등 경쟁력약화 업종에 대해 노후시설 폐기·개선 등의 구조조정이 진행
-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기계 및 부품소재 산업 육성과 기술개발 지원을 강화
 - 중소기업창업지원법('86년),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87년) 등이 시행

□ 해외현지생산을 확대함으로써 원가경쟁력을 확보하고 현지시장에 정착

- 1994년 해외투자자유화 조치가 시행되면서 대기업의 해외투자가 급증
 - 해외투자 건수: 689('93)→1,487('94)→1,332('95)
- 부가가치가 낮은 조립부분은 중국 등 인건비가 저렴한 국가로 이전하고 한국에서 부품, 중간재, 소재 등을 공급하는 분업체계 구축
 - 2005년 기준으로 對中수출의 상위 5대품목⁵⁾은 모두 부품·소재 분야
- 2000년대 들어 부품·소재 업체의 동반진출이 확대되면서 중소기업의 해외투자가 증대
 - 해외투자액 중 중소기업 비중(%): 20.8('95)→45.9('00)→38.5('05)

⁴⁾ HS 6단위 기준, 한국무역협회, "100대 수출품목으로 본 한중일 3국간 경쟁관계 분석", 2006.6

⁵⁾ MTI 4단위 기준, 반도체(10.8%), 광학기기부품(6.2%), 합성수지(5.9%), 무선통신기기부품(5.5%), 자동차부품(4.3%)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정보 DB

□ 품질, 디자인, 브랜드 등 비가격경쟁력을 강화

-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반영한 제품의 신속한 출시, 품질 향상 등으로 수출품목의 고부가가치화가 진전
 - 1995년 60개월이 걸리던 현대자동차의 제품개발 기간이 2004년에는 25개월로 단축
- 디자인, 브랜드 등 소프트 역량의 강화로 고급제품의 이미지 구축
 - 최근 한국 전자업체의 IDEA, iF 등 권위있는 국제디자인상 수상 증가
- 현지실정에 맞는 판매방식을 도입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지밀착경영으로 시장점유율을 제고

대우종합기계(現 두산인프라코어)의 중국 굴삭기 시장 공략 사례

- ▷ 대우종합기계는 1996년 중국 엔타이에 현지 공장을 설립한지 10년만에 중국 굴삭기 시장의 20%를 점유
- ▷ 전액 현금결제를 요구하던 관행에서 탈피, 현금으로 30%만 지불하면 은행대출로 살 수 있는 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면서 판매 급증
- ▷ 신속한 애프터 서비스로 현재 굴삭기 부문 고객만족도 1위 자리를 차지
 - 매년 대리점 관계자 1천여명에게 정비 교육을 실시하고, 심각한 고장이 나면 본사 기술자들이 비행기를 타고 24시간 내에 달려가 수리 (보도자료 종합)

4. 선진국의 견제를 기술경쟁력 향상으로 극복

선진국의 견제 본격화

- 한국 제품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늘어나면서 개도국의 특혜도 점차 상실
 - 1986~1989년 3저 호황으로 무역수지 흑자가 급증하면서 미국, EU 등의 통상압력이 가중
 - 미국은 1989년 한국 등 아시아 신흥공업국을 일반특혜관세(GSP) 대상에서 제외
 - 선진국들은 반도체, 자동차 등 주력산업에서 한국기업과의 경쟁이 시작됨에 따라 기술이전을 기피하고 공세를 강화
 - 1986년 2월 미국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는 삼성전자와 일본 반도체 기업들을 특허 침해 혐의로 미국 법원에 제소
- 대외 환경변화에 따라 정부의 보호막이 사라지고 국내시장이 개방
 - '공정한 무역(fair trade)'을 강조한 WTO 체제의 출범(1995년)으로 과거의 수입규제, 보조금 지급과 같은 정부의 보호가 불가능해짐
 - OECD 가입(1996년)으로 개발도상국의 각종 특혜가 상실됐을 뿐만 아니라 시장개방 등 회원국으로서 감당해야할 의무가 부여

수입자유화율과 평균관세율 추이

(%)

	1982	1984	1986	1988	1990	1992	1994	1996
수입자유화율	76.6	84.8	91.5	95.3	96.3	97.7	98.6	99.3
평균관세율	23.7	21.9	19.9	18.1	11.4	10.1	7.9	7.9

자료: 박상태, 『관세정책의 변천과 평가』, 한국조세연구원, 1997.7

위기를 경쟁력 향상의 촉매로 활용

□ 도전적인 R&D 투자와 첨단기술 개발로 위기를 극복

- 선진국의 견제가 본격화되면서 기술자립의 필요성이 높아졌고, 이에 따라 기업의 연구소 설립과 투자가 빠르게 증가
 - GDP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80년 0.8%→ '90년 1.9%→ '04년 2.8%
- 반도체, 이동통신 등 IT 분야에서 검증되지 않은 선도기술에 승부를 걸어 리더로 도약
 - DRAM 공정에서 6인치 웨이퍼(1984)와 트렌치 방식(1986)의 채택, 디지털 이동통신 표준으로 CDMA(1993)의 채택 등이 대표적 사례
- 조선, 철강 등 전통산업 분야에서도 신공법 개발에 주력하여 경쟁력을 극대화
 - 삼성중공업의 메가블럭공법⁶⁾(2003년), 포스코의 파이넥스⁷⁾(2004년) 개발 및 상용화 등

R&D 투자 규모 및 성과

	1970	1980	1990	2000	2004
총연구개발 투자(억 달러) (GDP대비 비율, %)	0.3 (0.38)	4.3 (0.77)	46.8 (1.87)	122.0 (2.68)	193.8 (2.85)
연구인력(명)	5,628	18,434	70,503	159,973	209,979
SCI 논문 발표수(건) (세계 순위)	-	-	1,780 (33)	12,471 (16)	19,294 (14)
미국 특허 등록수(건) (세계 순위)	-	-	236 (16)	3,699 (8)	4,590 (4)
정부:민간 투자 비중	71:29	64:36	19:81	25:75	25:75

자료: KISTEP DB, 미 특허청 Annual Report(1990~2004)

⁶⁾ 선박 건조시 각각의 블록을 육상에서 제작한 후 이를 도크로 옮겨 조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전보다 10배 이상 큰 블록을 제작하여 공정효율을 높이는 기술. 예를 들어 10만톤급 유조선의 경우, 종전 100여 개 블록이 필요했으나 메가블록 공법은 10개 내외의 대형블록 사용.

⁷⁾ 오염물질 발생을 기존 용광로의 1/10 수준으로 줄이고, 투자와 제조원가를 각각 10% 정도 줄일 수 있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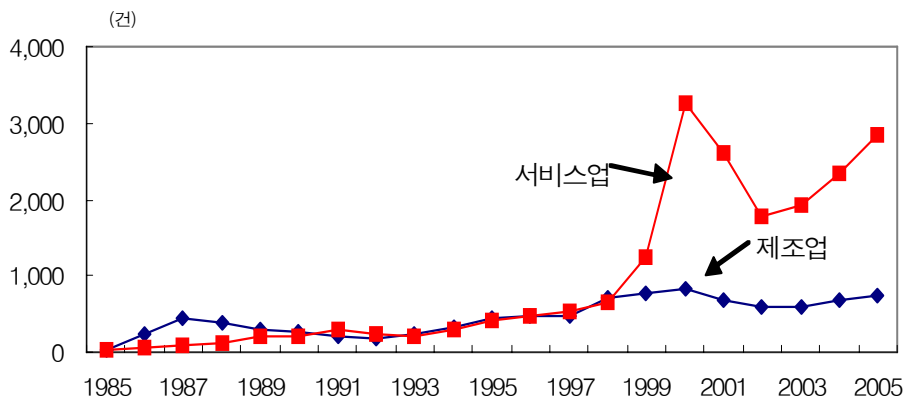
□ 국내 기업간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

- 휴대폰, 초고속 인터넷 등에서 벌어진 치열한 내수경쟁은 결과적으로 기술, 디자인 등 한국제품의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
 - 휴대폰(무게, 배터리 사용시간, 크기, 기능 등), 초고속 인터넷(속도) 등
- 내수경쟁은 IT인프라의 확산과 역동적인 소비자 집단을 만들어 냈고, 이들이 다시 기술발전을 촉진시키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
 - 인터넷 이용자는 2005년 3천 2백만 명(인구의 72%) 수준이며, 최근 고연령층(50대 35%, 60대는 11%)에서도 크게 증가

□ 한국에 진출한 선진기업과의 경쟁을 기술 및 노하우 습득 기회로 활용

- 외환위기 이후 제조업은 물론 유통, 물류 등 경쟁력이 취약한 서비스 분야에 선진기업이 진출하면서 내수시장에서의 경쟁이 격화
 - 1999년 이후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가 제조업을 추월
- 선진기업의 영업 및 관리 기법을 빠르게 습득하고 고유의 노하우를 접목하여 한국형 사업모델을 창출
 - E마트는 백화점업을 통해 획득한 노하우를 활용하여 단순한 창고형 할인매장이 아닌 '고객 중심의 쇼핑공간'을 창조하여 업계 1위를 지켰으며, 최근 세계최대 유통기업인 월마트의 한국점포를 인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외국인 투자 건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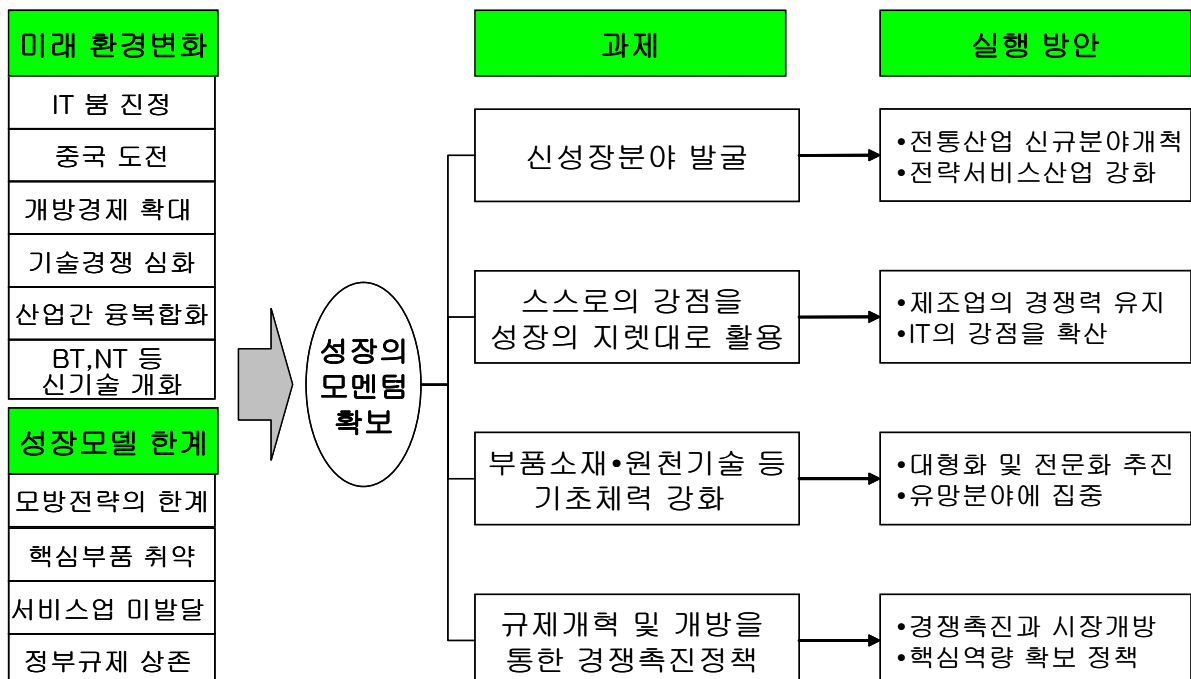


자료: 산업자원부, 외국인 투자통계DB

III. 향후 과제

- 과거 20년간 이루어 낸 산업성장을 향후로도 지속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준비가 필요
 - 미래의 환경변화는 예측하기 어렵고, 한국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전개되지도 않을 것임
 - 한미 FTA 등 개방경제체제 확대, 급격한 원화절상, 원천기술에 대한 외국기업의 특허 공세 등의 위협이 가중
 - 선진제품·기술의 모방을 통해 선진국을 추격하는 캐치업(catch-up) 전략도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음
 - 한국 산업의 성장을 촉발할 수 있는 새로운 추진력(momentum)을 확보
 - ① 신성장분야의 발굴, ② 스스로의 강점을 지렛대로 활용, ③ 부품소재·원천기술 등 기초체력의 강화, ④ 규제개혁 및 개방을 통한 경쟁 촉진정책 추진 등 4대 추진과제

한국 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한 과제



① 신성장분야의 발굴

- 전통 주력산업은 생산혁신과 기초기술투자 강화로 첨단 신제품을 개발
 - 조선은 요트, 철강은 신공법, 섬유는 신소재, 자동차는 전기자동차, 석유화학은 바이오 등의 신규분야를 공략
 - 제품·서비스와 IT의 결합, IT와 BT의 결합 등 융합기술부문을 선점하여 컨버전스 시대에 대응

- 서비스업은 잠재력이 높은 전략서비스산업에 집중
 - 서비스업은 산업의 매력도가 높고 잠재력이 높은 비즈니스서비스, 문화관광, 의료서비스 등 전략분야에 선택과 집중
 - 비즈니스서비스는 산업 매력도가 높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산업이며, 문화·관광은 한국의 우수한 소프트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 의료서비스는 고령화사회의 진전으로 성장률이 빠르고 국내의 우수한 인력이 집중되어 있으며, 한민족의 '손끝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

- 눈에 보이지 않는(invisible) 소프트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무형자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지식기반사회에 대응
 - 기존 1, 2, 3차 산업에 감성, 지식, 문화, 창의 등 소프트적인 요소를 가미하여 '0.5차 더하기'를 구현
 - 예를 들어 의류에 패션을 가미하여 고부가가치화하고, 1차산업을 관광과 연결하여 1차산업의 한계를 돌파

② 스스로의 강점을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

- 신속한 적응, 휴먼파워 등 한국의 특성과, 제조업, IT 등 한국의 강점 분야를 성장의 지렛대로 활용
 - 한국산업에 내재된 경로의존성(path dependence)을 중시하여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전략

- 제조업은 미래 성장모델에서도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 수출 의존형 경제구조에서 전체 수출액의 85%를 담당하는 국내 제조업은 핵심 성장동력
 - 일본, 독일, 스위스 등과 같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유지
 - 한국의 핵심 성장축인 제조업은 생산공정기술의 강점을 더욱 강화하여 글로벌 리더를 지향
 - 풍부하고 우수한 이공계 대학인력이 향후 제조업 발전의 기반
 - 제조업에서 균형잡힌 포트폴리오로 안정적인 산업발전 유지
 - 과거 국내 IT, 자동차, 조선, 화학 등의 균형있는 발전은 호황과 침체가 교체되는 환경하에서도 안정적인 수출성장률을 달성하는데 기여

- 경쟁력이 뛰어난 IT산업을 타분야 혁신에 활용하는 IT확산(IT-diffusion) 전략을 추진
 - IT를 활용하여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신사업 개척
 - 한국 가전산업의 뛰어난 기술력이 휴대폰기술로 진화하고 휴대폰 기술은 다시 디지털 가전기술 발전에 기여한 바와 같이 순환적 기술확산 기대

- 부품설계·생산·납품 등 공급사슬 전반에 IT기술을 적용하여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제고

③ 부품소재·원천기술 등 기초체력 강화

□ 부품소재 및 원천기술의 확보없이 창조적인 제품개발이 불가

- 현재도 신제품 개발시 핵심부품 및 원천기술이 걸림돌이며 대기업도 많은 로열티를 지불
 - 특허권 등의 사용료 수지적자가 2005년 현재 25.7억 달러에 이름

□ 부품소재 및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부품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유도하고 유망분야에 집중

- 핵심 부품소재의 세계적 공급기지화를 위해 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지원
- 부품은 세계시장 선점이 가능한 모듈중심으로 개발하고, 소재는 원천기술이 확보된 차세대 첨단소재 중심으로 개발
 - 개별부품에서 모듈단위로 경쟁패러다임이 전환되고, 표준과 특허 선점을 기반으로 하여 글로벌 소재기업이 독과점적 지배력을 행사
- 유망분야 육성과 사업화를 통해 원천기술 확보를 촉진
 - 선진국 대비 R&D 투자·효율성 열세를 만회하기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유망분야(바이오, 디스플레이, 무선, 로봇 등) 강화전략 필요

□ 첨단장비의 해외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자립형 생산체제를 갖추고 장비산업 자체를 수출산업화

- 한국은 그동안 첨단장비의 많은 부분을 해외에 의존
 -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의 장비 국산화율은 26%에 불과

- 투자가 활발한 중국시장을 겨냥하여 장비산업을 수출산업으로 육성

④ 규제개혁 및 개방을 통한 경쟁촉진정책 추진

□ 정부는 공정 경쟁을 촉진하고 규제 부담을 완화하여 경쟁력 있는 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

-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규제개혁이 필수
 -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들을 폐지 및 완화하여 통상마찰을 예방하고 국내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유도
- 규제의 건수보다도 규제비용을 줄이는 것을 목표
 - 규제가 미치는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분석해 실리가 적은 규제를 폐지하거나 합리적인 대안으로 대체

□ 시장 개방을 산업구조 개선의 기회로 활용

- 교육·의료 등 서비스산업 개방에 최우선 순위를 두어 해외의 선진기술 및 경영노하우 도입을 통한 경쟁력 강화

□ 산업정책 측면에서는 '특정산업 육성'(picking winners)보다는 다양한 산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핵심역량 확보'(building capabilities)에 초점

- 다양한 산업에서 두루 요구되는 핵심역량 육성이 불확실성에 대한 대처나 산업간 융·복합화에 유리
- 기초과학 및 기반기술 역량을 강화하고 논리력, 창의력, 수리력, 의사 전달 능력 등을 배양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필요

◆ 지표로 보는 경제 Trend ◆

< 금융동향 >

	6. 27.	6. 28.	6. 29.	6. 30.	7. 03.	
환율	원/달러(종가기준)	958.8	957.7	960.6	948.9	944.9
	엔/달러(뉴욕시장)	116.17	116.40	116.44	115.14	114.30
금리	회사채(3년AA-, %)	5.31	5.31	5.28	5.20	5.20
	국고채(3년, %)	5.04	5.04	5.01	4.92	4.92
주가지수(KOSPI, 종가)	1,247.5	1,238.7	1,263.0	1,295.2	1,294.6	

< 실물동향 >

(전년동기(월)비, %)

	2004년	2005년	2006. 2월	3월	4월	5월	6월
GDP성장률 ¹⁾	4.7	4.0	6.1
민간소비	-0.3	3.2	4.8
설비투자	3.8	5.1	6.9
산업생산 증가율	10.2	6.3	20.6	10.0	9.6	11.6	..
평균가동률	80.4	79.8	80.9	81.5	79.0	80.5	..
실업률	3.7	3.7	4.1	3.9	3.5	3.2	..
실업자(만명)	86.0	88.7	95.3	92.1	84.6	78.3	..
전국 어음부도율	0.06	0.04	0.02	0.02	0.02	0.02	..
소비자물가 상승률	3.6	2.7	2.3	2.0	2.0	2.4	2.6
수출(억달러, FOB) ²⁾	2,538.5	2,844.2	237.9	268.6	255.5	278.2	282.7
(증감률)	(31.0)	(12.0)	(16.6)	(12.1)	(11.7)	(20.3)	(19.2)
수입(억달러, CIF)	2,244.6	2,612.4	234.2	257.5	241.7	260.3	259.8
(증감률)	(25.5)	(16.4)	(27.3)	(13.1)	(13.8)	(23.0)	(22.1)
경상수지(억달러)	281.7	165.6	-7.6	-4.3	-16.1	12.7	..
외환보유액(억달러)	1,990.7	2,103.9	2,159.5	2,173.4	2,228.9	2,246.9	2,243.6
총대외지불부담 ³⁾ (억달러)	1,723	1,900	2,031

1) 한국은행 2006년 6월 2일자 '2006년 1/4분기 국민소득(잠정)' 보도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2) 산업자원부 수출입 동향자료에 의거하여 작성.

3) IMF, World Bank 등 9개 국제기구가 마련한 새로운 편제기준, 분기별 발표.